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자인품(慈仁品) ③

水火不與 수화불상
在所得利 재소득리
死屍焚天 사승법천
尼屠十一 시위십일

물이나 불에도 죽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나 이로움이 있어
죽어서는 법전에 올라가니
이것이 열한가지 기림이다

若念慈心 악념자심
無量不廢 무량불폐
生死斷薄 생사절박
得利還世 득리도세

혹 자비심 품기를
한량없이 버리지 않으면
나고 죽는 일 점차로 얹어져
저도 이롭고 세상도 건지리라

仁無亂志 인무란지
慈嚴可行 자퇴가행
慈勝眾生 민상중생
此福無量 차복무량

“공손한 말 부드러운 말로 남 공경하며 나쁜 마음 참으면 미움·원한 사라진다”

어짐에는 산란한 뜻 없나니
인자함이 최상의 행이라
중생을 가엾고 가엾게 여기면
그 복은 한량 없으리라

假令盡壽命 가령진수명
觀事天下人 근사천하인
象馬以祠天 상마이사천
不如行一慈 불여행일자

가령 목숨이 다 할때까지
천하의 사람들을 정성껏 섬기고
코끼리와 말 같은 제물로 하늘에 제
사해도
한번 자비한 맘 내는 것만 못하니라

언어품(言語品) ①

惡言罵詈 악언매리
惡說幾人 교동별인
興起惡行 흥기시행
疾惡滋生 질병자생

나쁜 말 꾸짖는 말로
잘나침 남을 멸시하여서
이런 짓 자주 일으키면
미움과 원한이 여서 생긴다

善言順辭 선언순사
尊敬於人 존경어인
樂結忍惡 기결인악
疾惡自滅 질병자멸

공손한 말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맛힌 맘을 풀고 나쁜 마음 참으면
미움과 원한은 스스로 사라진다

夫士之生 부사지생
奔在口中 부재구중
所以斷身 소이참신
由其惡言 유기악언

무릇 사람이 태어나면
그 입속에 도끼가 들었으니
그것으로 제 몸을 베는 까닭은
나쁜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淨穢小利 정위소리
如施失財 여엄실재
從彼致淨 종피지정
舍惡可惡 영의향악

작은 이익을 놓고 다투는 것은
제물없는 것을 덮어 가리는 격이니
남들과 다투는 하게되면
마음이 악한 쪽으로 향하게 된다.

善惡惡所樂 예악악소예

是二俱爲惡 사이구위악
好以口會語 호이구승부
是後皆無安 시후개무안

악한 것을 기리고 악한데서 기림 받
으면
이 둘도 다 악이되는 것
말로써 기승부러 싸우길 좋아하면
이는 뒤에 모두 안심을 없이한다.

無道惡惡道 무도타악도
自增地獄苦 자증지옥고
遷惡修忍意 원우수인의
念誦則無犯 염체즉무범

도심이 없으면 나쁜 길에 떨어져
스스로 지옥고를 더해가나니
어리석은 이 멀리하고 인욕을 닦아
진리를 생각하면 도를 범하는 일 없
으리라

從善得解脫 종선득해탈
爲惡不得解 위악부득해
善解者爲賢 선해자위현
是爲脫惡惱 시위탈악뇌

선을 좇으면 해탈도를 얻고
악을 일삼으면 해탈하지 못한다
올게 아는 이 어질다고 하나니
그는 악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龍眼

정영스님 <감사 주지>

“흙탕물 가리얏혀야 하천바닥 보듯 분별심 버려야 중도실상 얻어요”

봄이오니 온 산하의 꽃들이 화사하지
요. 이 봄에 부처님이 오셨고 우리 자신
도 깨달음을 알면 부처님같이 된다는 것
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만큼 수행을 게
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하루에 세번씩 간
절히 마음모으는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불교를 알면 꽃비가 수북히 내리는 아
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보는 것을
그냥 스쳐버리면 안돼요. 무엇이든지 다
원래의 뜻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
이 곧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 말고도 4천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을 알아야 합니다. 시방세계이기에 외계
인도 심령학 등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
닙니다. 단지 인간과 다르다는 차이만 있
을 뿐입니다.

우주의 근원은 하나의 법신체로 모든
것이 다 한마음에서 비롯됐어요. 그 한마
음이 분별심을 일으켜 나와 나, 큰 것 작
은 것, 잘난 것 못난 것을 만들어 내것이
지요. 깨달아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파도
가 없어 안전한 열반락을 이룰 수가 있
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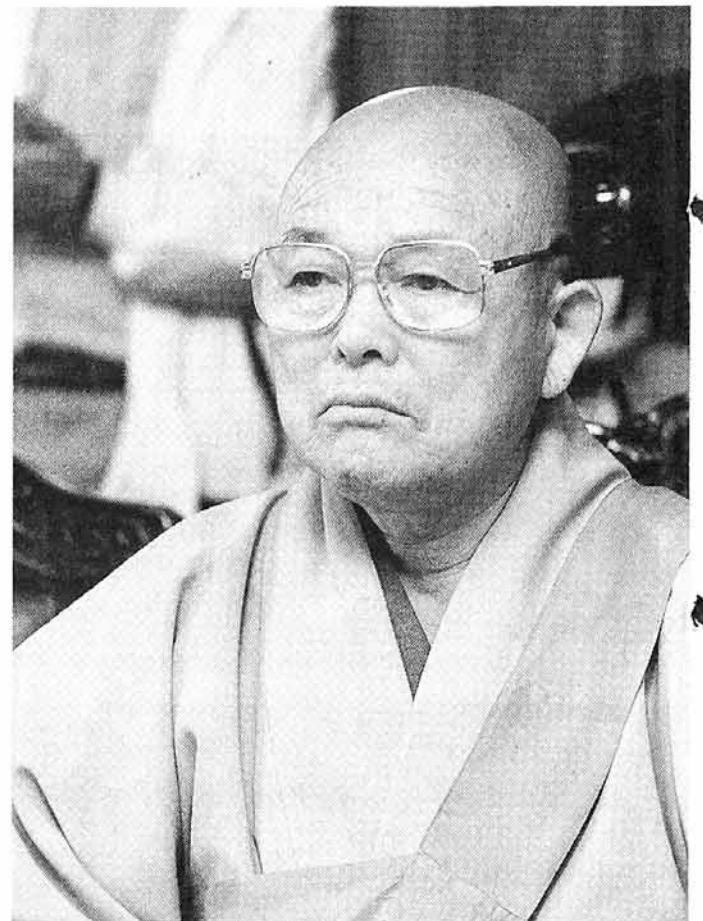
삼천대천세계 밖의 세계가 부처님의
보개일산속에 다 나타납니다. 일산속에
부처님세계 중생세계등 우주의 삼라만상
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화엄경>에 보면 선재동자가 53인의
도인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
지식중에는 스님 보살 신선 신이 있습니
다. 그중에서 구산스님이 나오는데. 구산
스님은 선재동자에게 ‘아, 네가 착구나
이렇게 보살을 구하기 위해서 왔구나’
하면서 손을 잡으니 우주전체가 다 드러
나 버립니다.

<사타르타>라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도
선재동자같은 구도자를 내세워 53인의
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설화 한 것
입니다.
선재동자가 사공을 만나는데 이 분이
선지식입니다. 그것은 <화엄경>의 정신을
서술해 놓은 것이지요. 뱃사공의 이마를
보는 순간 우주 전체가 다 나타나는 것
과 같지요.

부처님의 전기중 깨달음의 장면을 형
상화한 ‘알레프’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
공이 악혼까지 했던 죽은 애인의 1주기에
참석하여 그녀의 오빠집에서 알레프
라는 동전만한 발광물체를 보는순간 우
주삼라만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울어버

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
래에서 견뎠던 경계를 표현한 것입니
다. 부처님은 우주전체를 한눈에 보시고
다 들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것을 다봤다는 말이지요. 그
런데 보이는 것 뿐 아니라 듣기도 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이 그렇습니다.
스님들 수는 적었지만 불라도 수행열

- 1923년 경남 창원 생
1942년 해인사 출가 상월스님
은사로 비구계수지
1943년 해인사 칠불암 대성사
미라사 보문사 등 제법 선원에
서 수 십인거
조계종총무원 교무부장 재무부장
친척사 봉은사 망월사 주지 역임
1964년 우리나라 처음으로 무문관
개설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대자암
주석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다는 착각 탐내고 성내고 집착하는 이유 모두가 꿈과 같고 물거품 같아”

점은 대단했지요. 대부분 폐쇄된 곳에서
일심으로 정진했어요. 효봉 경허 성철스
님 등이 그 대표적이시지요.
무심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이
룰 수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수용 도인이 나오지 않는 것은 너무 풍
족해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다닐때 누이가 병으로 죽었
어요. 그러고나니 죽음에 대해서 겁이나
고 아팠어요. 그런 와중에 외사촌 형도
죽었어요. 그때는 밥도 안먹고 잠도 못이
웠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어린시
절을 보내고 사춘기때 죽지않는 법에 대
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신선이라

는 영생의 비법이 있다는 소리를 얼핏들
고 나서 각종교의 종교서적을 탐독했지
만 뽀족한 것을 못봤습니다.
어느날 인도철학에서 ‘범(凡) 즉 우
주의 근원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도 아니다’라는 내용을 보고나서 ‘그것이
말이 되는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 아니냐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안된다 생각되면서도 이상
한 것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안떨어져요. 일본유학중에 우연히 <금강
경> <반야심경>을 보고 공사상을 알게되
면서 실제로 이런 도(道)가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즉시 경도에서 떠나 금

강산으로 들어왔어요.
<금강경>을 보고 도당을 생각을 했어
요. 그때만해도 처음에는 출가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스님들이 열
불이나하고 재나 지내는 분으로 생각했
어요. <금강경>의 이치를 제대로 알려면
수행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안보였기에
그런 생각에 찌든 것이지요. 산에서
3년동안 수행하면 부처님 도를 이룰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쌀을 들고 눈으로
뒤덮힌 금강산 마하연에 들어갔어요. 동
굴에서 참선에 틀러는데 한 스님이 동굴
속에서 다가 오더니만 ‘선을 아느냐?’고
물어요. ‘예’하고 대답하니 들어가 버리
시더군요. 가만히 들어앉아있던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공부해야겠다고 눈을 감고
헤치고 들어가다가 감기에다 병이 걸려
서 죽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창원에 있는
백부 숙부집으로 돌아와 살면서 겨우 병
이 나아졌어요.
집에서는 장님이 도당이라고하니 반대
가 컸습니다. ‘나 죽는 것은 부모도 말할
수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나
또한 구해드릴 수 없다. 내가 도를 얻어

생활 속의 불교 (123)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은 그 자리는.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고집하지 말
라. 고집은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이 넓으면 세상을 다 안아들이고도 남
음이 있지만 마음이 좁으면 바늘 끝도 안
들어간다. 그러기에 항상 나를 낮추고 상
대를 공경함으로써 세상을 다 안아들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곧 불법에 귀의하는
것이요 자유인이 되는 과정인 것이다. 겸
손하고 또 겸손하라 내 마음이 넉넉하면
그 향기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게 된다. 항
상 마음의 고개를 숙여라. 그런 마음이야
말로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주는 마음이 먼저다. 받고자하는 마음
이 앞서면 상대는 문을 열지 않는다. 문을
열기는 커녕 경계하는 마음이 된다. 고로
받으려거든 먼저 주어야. 주어야 받는다.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다. 내가 무엇
을 준다는 행위 이전의 열린 마음이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받아 들이
는 것-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받
아 주는 것, 그것이 주는 마음이다.
무엇인가를 예체 주려고 하지 않아도 열
린 마음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있어라. 가만히 있어도 열린 마
음이면 그건 주는 마음이다.

나를 낮추는 것은 열린 마음의 시작이
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춰 저 땅지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가 없
다. 벽도 없고 담장도 없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누구하고라도 너나들이를 할 수
있다. 울타리가 없으니 거칠 게 없다.

넓디 넓은 들판엔 수많은 꽃들이 다투어
피고 못 짐승들이 와서 머물고 머물다가는
때난다. 거기엔 아무런 시비도 남지 않는
다. 갈등도 없다. 장애도 없다. 들판 위로
부는 바람엔 소리로 없다. 세운 게 없고 선
계 없으니 거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주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고 열린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다.

울타리가 좁으면 들어 설 자리도 좁다.
좁은 공간에 쌓아두면 얼마나 쌓겠는가.
많이 쌓고 싶으면 울타리를 넓게 쳐라. 더
많이 쌓고 싶으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
라. 넓은 들판엔 아무리 많은 양을 쌓아놓
아도 여전히 빈 자리가 남는다.



그런데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면서 반대로
울타리를 더 좁게 더 굳게 치려한다면 얼
마나 어리석고 모순된 일인가. 많이 갖고
싶거든 넓게 쳐라. 더 많이 갖고 싶거든 아
예 울타리를 허물어 버려라.

세상에서 높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높은 게 아니다. 그걸 높다고 하면 나의 착
각일 뿐이다.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언
제나 더 높은 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
정으로 높은 것은 어떤 것일까. 높이 세우
지 않은 것이 가장 높다. 왜냐? 세상에 제
아무리 높은 것이라도 세우지 않은 것과
높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
공이 가장 높다. 아무 것도 세운 게 없기에
가장 높다.

가장 강한 것은 열린 마음이다. 아무것
도 지킬 게 없는 마음. 누구와도 맞서지 않
는 마음이 가장 강하다. 무심과 겨룰 수 있
는 것은 없다. 무심은 작정한 바가 없므로
아무도 맞설 수 없고 아무도 격을 수
없다. 허공을 어떻게 격을 수 있는가. 허공
과 어떻게 겨룰 수 있는가.

높이 오를 수록 낮아져야 한다. 많이 가
질수록 가난해져야 한다.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라.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마음을 열려라.

오를 때는 내려가는 이치를 생각하고 내
려갈 때는 그것이 본래의 길임을 잊지 말
라. 오르면 내려가야 하고 내려간 것은 오
르게 되어있다. 그것이 세상의 결모습이다.

거기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려면 마음을
열고, 마음을 비우고 작정하기를 멈춰라.
세우는 마음, 지키려는 마음을 과감히 포
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는다.

저 광활한 들판이 다투지 않듯이 일체의
다툼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되면 모두가 나
와 더불어 사랑하고 나누고 같이 먹으려
할 것이다. 거기 자유인의 길이 있다.

협찬 : 엄홍수 · 조인숙